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 다이어트 쇼플물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리카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처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케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감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황교안은 김병준의 미래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게다가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자가 이완용입니다. 확 깨겠지요? 그렇습니다.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논리, 주장하는 바, 문학적성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메시지는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메시지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견 조

선일보가 자주 쓰는 수법이지요. 진보 인사 중에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이념과 진영에 충실해하는 부류로 묶어 놓는 것 말입니다. 더 이상 확장성이 없게 좌파, 운동권, 친노 이런 식으로 낙인을 박는 것, 고약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근혜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울음을 삼켰다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건 가뭇에 콩 나듯 하는 정도고요. 대다수에게는 조롱과 풍자의 소재가 됐을 뿐입니다.

박근혜 씨는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습니다. 메신저로서 권위를 잃게 되니 메시지는 당연히 먹히지 않습니다. 국민이 박근혜 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대통령직 사퇴 선언입니다. 박근혜 씨는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박근혜 씨는 적당히 뭉개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때 거세게 되치기하면 난국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는 수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몽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는 메시지로 공작을 벌이고, 기술을 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야가 시간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다시 혁명의 깃발을 드는 날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모여, 거짓과 기만, 사술로 버텨온 나쁜 권력을 종식시키는 원점을 형성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맙시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5일(토) 1부 | [단독] 김현웅 법무, '황교안 문자해고'에 격분

[오프닝] 박근혜, '하야 선언' 말고 그 어떤 메시지도 감동 못주는 상태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경향신문, 종합일간지 최초로 박근혜 사퇴 촉구 사설 게재
- "박근혜, 재벌회장에 직접 미르·K재단에 1000억 지원 요청"
- 김병준, 내정 일주일만에 사퇴 고민 중·야당 반대에 한계 절감
-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5% 지지율? 국민에 이미 탄핵된 상태"
- 박정희도 최태민 때문에 통탄 "저 늙은 교통사고로 죽어야 할 놈"
- [최동석 칼럼]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 박근혜 스캔들의 본질과 성취예측모형에 대하여
- [김프로이드] 김프로 전 SBS기자
- 김현웅 '깊은 뺨침', 향후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 어떤 영향 미칠까
- 경계해야 할 '최재경' 개입

■ 11월 5일(토) 2부 |

[관훈나이트클럽] KBS MBC '상충부' 사극에 좌불안석?

-민동기 미디어평론가.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김용민 PD

종합일간지 최초 하야 촉구 사설

경향신문 불편해도 할 수 없다...이젠 물러나야

경향신문의 오늘 사설은 하나다. 장문이고, 그리고 기념비적이다. 종합일간지 중 최초의 박근혜 사퇴 요구 사설이다.

“대통령 박근혜 씨는 여전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국정문란 사태가 단지 자신의 선의가 잘못 전달된 결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권력을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 동원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맡겨진 국가관료 조직을 사병처럼 부리고, 기업과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훼손한 행위는 선의였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의라는 것도 과연 존재했는지 믿기 어렵다. 장관 및 참모들과는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만나서 노동자들의 피담으로 일군 기업의 부를 자신의 축금을 위해 쓰도록 강요한 일은 결코 선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라를 파탄 지경으로 만든 사람을 한 명만 고른다면 바로 박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최순실씨를 사법처리해서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게 막는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 박근혜 씨에게 닥친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닌, 3년9개월간 축적된 결과이자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끼를 던져 시민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모욕적인 수법을 구사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박근혜 씨는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탄핵이 어느 정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 그는 이제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씨가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근혜 씨는 여야, 국회, 시민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상실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통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씨는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즉시 사임을 선언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는 하야해야 공정

한겨레 어제 대국민 해명에서 또 거짓말

어제 박근혜 씨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 이걸 보기 좋게 뒤집는, 즉 박근혜가 거짓말을 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1면을 장식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애초 10대 그룹이 6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규모가 잡혔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이를 ‘30대 그룹이 1000억원을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대통령이 돈 낼 기업과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을 보면 본인은 재단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라는 건데 검찰이 이를 깨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대질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게 가능하려면 박근혜 씨가 사퇴해야 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박근혜 씨가 사퇴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일보 박근혜 처벌받는다면 그 수위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박근혜 씨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한국일보를 보자. 한겨레 보도대로,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언한대로 박근혜 씨가 강제모금을 진두지휘한 게 사실이라면, 포괄적 뇌물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기소한다면, 대법원 판례상 뇌물죄는 구체적 청탁이 없다 해도 금품의 직무관련성만 입증되면 되기 때문에, 국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박근혜 씨의 관심은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현실, 이거보다는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쏠린 것 같다. 그렇다면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겠지? 시민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김병준만 주장하는 ‘책임 총리’

한국일보 박근혜, 김병준에 대한 언급 안 해

어제 박근혜 씨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선 후퇴나 거국내각 구성은커녕,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조한 책임총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게 힘을 신겼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하지만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이 말만으로는 과연 김병준 씨가 공언한대로 경제 사회 등 내치 분야를 총리에게 전적으로 맡길 가능성은 낮다. 책임 총리? 김병준 씨만 주장하는 양상이다.

국민일보 1주일 안 됐는데 김병준 사퇴 고심

국민일보 이 기사, 폭소를 자아낸다. 김병준 씨가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것이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입장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김병준 씨가 국회 인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 이제 해법은 김병준 씨가 자진 사퇴한 이후 거국중립내각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권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다. 비주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이다. 김병준 씨가 사퇴한다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셈이다.

한겨레 이미 탄핵 상태..호남 지지율 0%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치 어제 전해드렸지. '정치컨설팅민'의 박성민 대표 분석이 주목된다. "5%는 기술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다. 국민이 탄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사실상 지지율 0에 가까운 수치다. 충청 3%, 서울 2%, 호남 0%였다. 박성민 대표는 또 "국민은 이미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박 대통령은 본인이 국정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 중심으로 국정 리더십을 끌고가지 않으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것"고 했다.

국정농단 양심농단

경향신문

정유라 국가대표 반대했다고 지원 줄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말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에 반대하던 강원도 승마협회장을 자르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줄이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의 압력에 놀라 강원도 체육회간부가 직접 문체부를 방문해 사정했으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문체부가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국고지원금까지 들먹이며 강제로 승마협회 임원진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였다.

내일
주진우 함세웅
악마기자 정의사제 북 콘서트
특별 업데이트

東亞日報 “정호성 외 나머지 ‘문고리’도 연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개인용 업무용 휴대전화 2대 등에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메모를 확보하고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기밀 누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씨를 비롯해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핵심 참모들이 수사선상에 대거 오르게 됐다.

최태민 요즘 등장한 사람인가?

경향신문 박정희 “최태민 교통사고로 죽어야”

평화박물관 문제로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최태민에 대해. "박정희는 최태민 문제에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지만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다. 측근들의 회고에 박정희가 최태민 관련 보고가 올라오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느니, 눈물을 보였다느니, '저 년이 저 놈에게 흠뻑 빠져서' 헤어내질 못한다느니 탄식했다는 것이 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갑제에 따르면 박정희는 1979년 5월 최태민이 여전히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그자는 백해무익한 놈이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 없어져야 할 놈이다'라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를 붙들어

맨 것은 '야단치려고 해도 어미 없는 것이 불쌍해서 눈물 나더라'라는 동정심이었다. 이 동정심이 결국 자신과 박근혜를 망친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최태민 문제와 관련한 검증에서 박근혜 후보가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고 슬렁슬렁 넘어갔었다. 박근혜가 천벌 받을 일이라 발끈했던 출산설이야 사적인 영역이니까 검증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정치 입문 이전의 공적 활동인 영남대재단,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활동은 중요한 검증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조직에서 박근혜는 최씨 일가나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휘둘리고 있었다. 언론이나 정치권의 무책임과 나태함이 오늘의 화근을 키웠다."

